

국내 뉴스

1. 다가오는 대한항공 기업결합...11월 '분수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과 영국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승인할 경우 남아있는 국가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다음 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부터 대한항공 임원과 담당자를 만나며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회사가 제시한 합병 이후 시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경쟁 시장 청(CMA)은 합병 이후 시장의 경쟁성이 감소할지와 서비스 하락 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곳은 미국이다.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도 있는 만큼 미국의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의 경우 과거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을 대부분

승인했다. 2014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U.S 에어웨이의 통폐합 과정에서 미연방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 기업결합이라 판단하기도 했지만,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며 이를 해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도 이를 의식한 듯 국내외 항공사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대체 항공사를 내세우고 있다. 인천~LA(로스앤젤레스)는 국내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이달 취항하고, 인천~런던에는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기업 결합심사만 남는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다. 이 중 지난 9월 승인을 받은 호주를 포함해 총 9개 국가에서 심사가 완료됐다.

미국의 승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이 외교적인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서다. 또 EU는 올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독점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허가 안 해주기도 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경우 막상 뚜껑을 열면 모 아니면 도 식의 결정이 있다"며 "이와 함께 EU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불허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일본과 EU의 경우 본심사 전 사전협의 단계가 진행 중으로 미국과 영국의 결과가 나온 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외교적인 경로로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2. 에어서울, 오사카·후쿠오카 운항 재개...일본 노선 확대



에어서울은 오는 30일부터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노선 모두 하루 한 편, 주 7회 운항으로 시작하며, 인천-오사카는 내달 21일부터는 각각 하루 두 편씩 주 14회 운항으로 증편한다.

현재 주 2회 운항 중인 인천-도쿄(나리타) 노선 역시 오는 30일부로 주 7회로 증편하며, 11월 21일부터는 주 14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인천-다카마쓰 노선에 재취항한다. 일본 소도시 지방공항 노선이 재개되는 것은 국적항공사 중 에어서울이 처음이다.

에어서울은 일본 노선 증편을 기념해, 이날부터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왕복총액이 △인천-후쿠오카 17만 9400원~ △인천-다카마쓰 18만 5000원~ △인천-오사카(간사이) 23만 1800원~ △인천-도쿄 28만 1100원부터이며, 탑승기간은 11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일본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고난 후 일본 노선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연말에는 일본 여행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본 노선 취항 및 증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3. 항공사 일본운항 대폭 늘린다...무비자 허용에 잇따라 증편

사이언스 투데이

항공사 일본 운항 늘린다... 무비자 허용에 잇따라 증편

국내 항공사들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일본 무비자 여행 및 입국자 수 제한 해제에 맞춰 일본 노선 운항을 대폭 늘린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1일부터 인천~나리타(도쿄)·오사카를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14회로 증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후쿠오카는 다음달 14일부터 주 3회 운항을 재개하고, 다음달 30일부터 매일 운항한다. 인천~삿포로는 다음달 30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나고야는 11월부터 주 4회에서 5회로 증편하고, 12월부터 매일 운항한다.

부산~나리타는 다음달 13일부터 주 3회에서 7회로, 인천~나고야는 11월부터 주 4회에서 5회로 증편한다. 나고야 노선은 12월부터 매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30일부터 인천~나리타를 주 10회에서 12회로, 인천~오사카를 주 7회에서 10회로, 인천~후쿠오카를 주 3회에서 7회로, 인천~나고야를 주 2회에서 3회로 각각 증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도쿄 도심 접근성이 좋아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김포~하네다(도쿄) 노선도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2019년 하계 스케줄을 기준으로 일본 노선을 주간 143회 운항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와 양국 간 무비자 여행 협정 폐지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주 29회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증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일본 노선 운항률을 팬데믹 이전의 4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제주항공]도 다음달 1일부터 인천~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 노선을 하루 2회 운항으로 증편한다. 다음달 30일부터는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 김포~오사카와 인천~삿포로 노선을 주 7회로 재운항한다.

에어부산은 다음달 11일부터 부산~후쿠오카·오사카를 매일 운항하고, 17일부터 매일 2회로 증편한다. 인천~오사카도 다음 달 20일부터 매일 운항한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4. 대한항공, '세계 최고 항공사' 9위 선정...1위는 어디?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 탑10

순위	항공사
1	카타르항공
2	싱가포르항공
3	에미레이트항공
4	전일본공수(ANA)
5	관타스항공
6	일본항공(JAL)
7	터키항공
8	에어프랑스
9	대한항공
10	스위스항공

(출처: 스카이트랙스)



대한항공이 영국 컨설팅 업체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항공사' 9위에 올랐다.

25일(현지시간) CNN은 영국 컨설팅 업체 스카이트랙스가 이날 런던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1위로 카타르항공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트랙스는 지난해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0여개국 1400만명

의 승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번 순위를 매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스카이랙스 시상식이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2위는 싱가포르항공, 3위 아랍에미리트(UAE)항공, 4위 전일본공수(ANA), 5위는 호주 콰타스항공, 6위 일본항공(JAL), 7위 터키항공, 8위 에어프랑스로 집계됐다.

9위인 대한항공과 함께 스위스항공이 10위에 이름을 올려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편, 카타르항공은 앞서 일곱 차례 스카이랙스 순위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출처] <https://news.airportal.go.kr/>

5. 제주항공, 재해 대응 훈련…“수백만분의 일 가능성도 없애야”



제주항공이 3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소방구조대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가정한 가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체계적으

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 중 떨어진 상황을 가정한 이날 훈련에서 제주항공은 유관 부서별 의사결정, 현장에서의 대응 절차,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 등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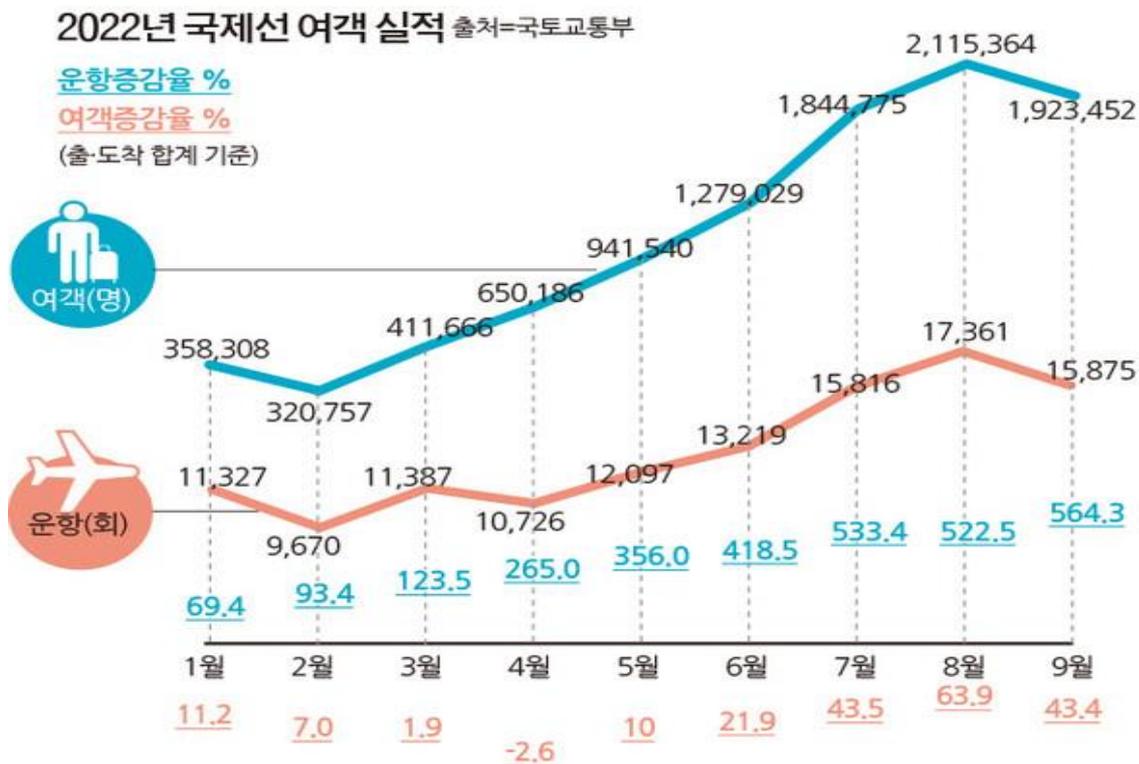
김이배 대표이사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수백만 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발생 가능성을 줄여가는 확률 관리의 과정"이라며 "모든 구성원은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자신에게도 재해가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주항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며 "재해 대응 역시 No.1 LCC다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김이배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6. 국제선 여객 250만명 돌파 ... 항공사들, 하늘길 더 넓힌다



월간 국제선 여객 수가 지난달 250만명을 돌파했다. 항공 업계는 해외 여행 수요가 늘자 국제선 운항 확대에 나서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여객 수는 전월 92만3452명보다 58만명 이상 증가한 250만83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 397만1511명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국제선 여객 수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30만~40만명의 저조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후 방역기준 완화, 코로나19 우려 완화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6월 100만명대를 돌파했다.

또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인기 노선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8월에는 211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회복세가 이어져 지난달 250만명을 돌파하며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제선 운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는 8일부터 부산~세부, 11일부터 부산~치앙마이 노선 운항을 주 7회로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에서 후쿠오카, 삿포로, 오사카로 운항하는 노선의 재운항에 들어갔다. 티웨이항공은 내년 1월 11일부터 주 4일 일정으로 청주~다낭 정기노선을 시작한다.

항공 업계는 그간 방역 규제로 축소됐던 중국 하늘길도 다시 늘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선양 노선을 주 2회로 증편했고, 28일부터 인천~다렌 노선을 주 1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항저우 노선을 2일부터 주 1회, 선전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주 1회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LCC들도 중국 노선 증편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항공 업계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중국 노선 비중이 국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국제선 운항 횟수가 동계기간 성수기의 6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동계기간인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의 29개 노선에 대한 국제선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동계기간 국제선은 총 162개 노선, 주 2711회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 동계기간 국제선 대비 57.5% 규모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7.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안전은 시늉만 하는 기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며, 최근에만 3번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여국민의 걱정은 통상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점검방식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점검과 조치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점검과 태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 번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

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 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하여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밖에 참석한 항공사들도 사전자율보고 확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에 준수, 운항통제 고도화, CEO부터 현장인력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적극 추진의지를 피력하였다.

회의 마무리에 원장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항공산업의 회복되는 시점에서 변화관리가 중요하며,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항공안전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대청소하여 "위기를 기회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를 삼고 민, 관, 기타 제3의 기관까지도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까지 11개 우리나라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사별 휴직종사자 복귀현황, 해외공항 운항준비 상태 등 국제선 정상화 등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사고를 유발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주간 운항승무원 훈련심사, 엔진 등 항공기 주요계통 정비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 뉴스

8. 비엣젯항공 3분기 매출 급 성장...신규 국제 노선 확대하며 누적 승객 수 증가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 비엣젯항공(Vietjet)이 올 3분기 동안 640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며 코로나19 이후 서서히 매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2일 비엣젯항공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비엣젯항공의 매출은 한화로 약 5천847억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약 6천614억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2%와 337% 증가한 수치다.

올 3분기 비엣젯항공은 3만 5천 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여 640만 명의 승객을 실었다. 국내선 여객 운송의 경우, 총 항공편 수와 승객 수가 각각 36%와 44% 성장을 보였다. 국제선 여객 운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25% 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수송한 총 화물량은 1만1천500톤이었다.

신규 노선 확장도 이뤄졌다. 비엣젯항공은 10개 이상의 신규 국제 노선을 운항하며 2022년 9월 30일 기준, 국내선 49개, 국제선 35개 등 총 84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비엣젯항공은 연말까지 해외 시장 승객 수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4분기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엣젯항공은 항공 운송 사업 외 사업부문 다각화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고객의 탑승 경험을 개선하고자 서비스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각화하고 있다.

그 중 비엣젯항공이 개발한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는 2022년 3분기 말 이후 매출을 내고 있다. 지상조업 서비스 자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조종사 및 항공 인력 교육 사업 매출은 전년의 약 두 배를 기록했다.

비엣젯항공 관계자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와 구정 최성수기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히 국제선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9. 젯스타, 인천-시드니 직항 노선 운항 시작..."주3회 운항"



호주 국영 항공사인 콰타스(Qantas) 그룹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 젯스타(Jetstar)가 지

난 2일 인천-시드니 노선의 첫 취항을 시작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저비용항공사 중 하나인 젯스타는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을 주 3회씩 운항해 매년 최대 1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한 첫 항공편은 최첨단 보잉 787-8 드림라이너 항공기로 운항됐다. 두 종류의 좌석 중 이코노미석 승객들은 추가 수하물과 기내식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모든 것이 포함된 풀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신규 노선 취항은 시드니가 호주에서 가장 화려한 관광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지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젯스타는 설명했다.

앨런 맥킨타이어 젯스타 고객 및 커머셜 본부장은 "젯스타의 모든 직원이 이 새로운 노선에 탑승할 승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시드니를 잇는 새로운 직항 노선의 운항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는 한국과 호주를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해 그 어느때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시드니의 볼거리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60개 이상의 광범위한 호주 항공 노선을 갖춘 젯스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뉴사우스웨일즈(NSW)를 비롯한 호주 전역을 탐험하면서 호주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콰타스(Qantas)도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의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

10.머스크, 항공화물 2차 거점으로 한국 선택...국내 물류 지각변동 예고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Maersk)의 항공화물 항공기가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 거대 물류 공룡의 한국 항공화물 사업 진출로 인해 국내 물류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는 운임을 두고 머스크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 LX판토스, 현대글로벌비스 역시 머스크의 '복합물류'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머스크의 항공화물 계열사 '머스크 에어 카고'가 지난달 31일 미국-한국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최근 신형 화물기 '보잉767-300F'를 3대 구입한 머스크는 이 중 한 대를 한·미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머스크 항공화물 사업의 첫 아시아 노선이다. 당초 머스크는 지난 8월부터 미국과 중국을 잇는 항공화물 노선을 운행하기로 했으나, 10월 들어 한국으로 도착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머스크의 아시아 거점이 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전략을 수립한 후, 육해공을 아우르는 복합물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드 투 엔드 전략은 물류회사가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 소비자의 집 앞까지 모든 물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이 세계 최대 해운사의 항공화물 아시아 거점이 된 만큼 국내 기업과의 항공운임

가격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머스크는 항공화물을 이용한 수익창출이 아닌 복합물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 초기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할 전망이다.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지수인 TAC 인덱스의 지난달 홍콩~북미 노선의 운임은 1kg당 7.94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kg당 12.72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월 9.69달러, 6월 8.72달러, 8월 8.33달러 등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격에서 저가 경쟁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여객 수요 감소에도 화물항공으로 수익을 올려왔던 대한항공은 실적을 올릴 수 없게 된다. 최근 항공화물 사업을 확대 중인 제주항공, 진에어 등은 거대 물류기업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항공업계 외에 국내 해운, 종합물류 기업들도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LX판토스, 현대글로벌비스 등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머스크와 같이 직접 배와 비행기를 사들여 운행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식이다. 즉 물류 시장이 불안할 경우 선박, 항공기 수배가 직접 운영 방식의 머스크와 비교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화주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자신의 물건을 고객에게 보낼 안정적인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 도매판매부터 개별 판매 과정까지 모든 물류과정을 직접 수행 가능한 머스크가 아시아 거점을 한국으로 정한 만큼 국내는 물론 아시아 화주 확보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HMM 역시 선복량 확대에 따른 화주 확보 영업이 한창이지만, 머스크에게 주요 화주를 뺏길 수 있는 위기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내 물건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객의 집 앞에 책임지고 가져다주는 물류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곳을 선택할 것"이라며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물류사 간 화주 확보 경쟁이 심화한다면 국내 기업들도 머스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AIRZINE (한국항공 협회, <https://news.airportal.go.kr/>)